

### P3-07

#### 한국 식이장애 환자의 식습관 및 혈액특성에 관한 연구

박제진\*, 강희찬<sup>1</sup>, 최혜라<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sup>1</sup>백상정신과의원 식이장애전문클리닉

한국 식이장애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 식이장애전문클리닉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DSM-IV진단기준에 의해 Anorexia Nervosa(AN)와 Purging type의 Bulimia Nervosa(BN)로 진단된 초경연령 이후의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내원당시 영양상태와 혈액성상을 평가하였고, 결과는 AN과 BN, restricting type(RE)과 binge/purging type(BP)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n=25, 26, 8, 43). AN과 BN의 내원 당시 평균연령은 24.9세, 23.9세였고, BMI는 15.0, 20.2였으며, 폭식을 제외한 섭취열량은 558.9kcal/day, 864.1kcal/day로 BN이 많았다(p<0.05). AN과 BN의 1회 폭식중량은 694.1g, 869.7g, 1회 폭식열량은 948.6kcal, 1406.0kcal로 BN이 고열량의 식품으로 폭식하는 경향이었고, 일폭식횟수는 1.98회, 1.54회였다(주관적폭식포함). AN에서 체중과 1회폭식열량은 양의 상관관계(r=0.4014, p<0.1)를 보인 반면, BN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AST와 ALT는 AN이 BN보다 높았다(AN, BN 각각 21.78, 16.07IU/ℓ, 20.78와 15.60IU/ℓ). 혈당은 AN(89.65)이 BN(97.83mg/dℓ)보다 낮았고(p<0.05), BUN은 AN(11.91)이 BN(9.71mg/dℓ)보다 높았다(p<0.1). AN에서 TSH(1.92)가 BN(1.10μIU/ml)보다 높았다(p<0.05). AN에서 일폭식횟수가 많을수록 ESR이 높고 TSH가 낮았다(r=0.6001, -0.4931, p<0.01, p<0.05). 또한 BMI는 Hb, Hct, RBC 수, WBC 수, glucose, T4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TSH, AST, ALT, BUN과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5699, 0.6011, 0.4418, 0.5207, 0.5807, 0.4087, -0.7042, -0.4523, -0.4279, -0.3801). BN에서 BMI와 glucose, T4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AST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5357, 0.6207, -0.4858). RE와 BP의 평균연령은 20.5세, 25.1세로 어린 연령대에 RE가 많았다(p<0.05). RE는 혈청콜레스테롤함량이 232.71mg/dℓ로 높은 경향이며, RE에서 BP보다 TSH가 높은 편이었다(2.84, 1.30μIU/ml). amylase는 BP에서 유의적으로 높았고,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65.0, 158.5U/ℓ, p<0.01). 또한 BP에서 amylase는 일폭식횟수와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4860, p<0.01). RE에서 BMI는 WBC 수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TSH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8516, -0.9251). BP에서 BMI는 Hb, Hct, RBC 수, glucose, T4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AST, ALT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5349, 0.3680, 0.6535, 0.4817, -0.4803, -0.4216). 이상의 연구에서 한국에는 purging type의 식이장애 환자가 많고혈액검사상 이상소견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AN과 RE에서 BMI와 TSH간의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졌고, purging behavior에 의해 BP에서 amylase가 현저히 증가되었다. 또한 진단명과 bingeing여부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므로, 식이장애환자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P3-08

#### 영양불량 상태에 따라 분류된 입원환자의 신체계측지수, 생화학적 지표와 총 재원기간, TPN 공급전 재원기간, TPN 공급 기간과의 관련성 연구

배제현\*, 김순경<sup>1</sup>.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부천병원 영양팀, <sup>1</sup>순천향대학교 응용과학부 식품영양전공

본 연구는 입원환자의 영양상태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경구섭취가 불가능하여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으로 영양공급을 받은 입원환자 33명(남자 18명, 여자 15명)을 대상으로, 입원시 영양불량 상태에 따라 3군으로 분류한 후, 신체계측지수와 생화학적 지표가 총 재원기간, TPN 공급전 재원기간, TPN 공급 기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계획하였다. 대상자는 PCM(Protein Calorie Malnutrition)진단 기준에 따라 Mild PCM(이하 MP, 13명), Moderate PCM(이하 MoP, 9명)과 Severe PCM(이하 SP, 11명)으로 분류하였으며 재원기간은 평균 41.6일이었고, 입원 후 TPN 공급 전 재원기간의 평균일수는 13.5일이었으며 TPN 사용기간은 21.6일 이었다. 신체계측지수로는 신장, 체중, 평소체중, 이상체중, BMI, 체중감소율(지난 6개월 동안의), PIBW(percent ideal body weight), 체중변화량등을 조사하였으며, 생화학적 지표로는 혈액내 총 Protein, Albumin, Sodium, Potassium, Chloride, Hemoglobin, Hematocrit 및 총 임파구수(TLC; total lymphocyte count)를 측정하였다. PCM 진단기준에 의한 신체계측치는 영양불량의 정도가 심할수록 체중백분율과 체질량지수가 유의적으로 낮았고, TPN 공급전 영양상태는 세군 모두 BMI, PIBW, % Wt loss, Albumin, Total protein과 Hemoglobin이 정상범위보다 낮게나타났다. 영양불량 상태가 비교적 경미한 MP군에서는 각 기간별 신체계측지수와는 유의적인 관련성은 없었으며, 총 입원기간, TPN 공급전 재원기간과 입원시 혈청내 Sodium함량 간의 유의적(P<0.05)인 관련성을 보였고 TLC(total lymphocyte count) 함량은 TPN 공급전 기간과 유의적인(P<0.05) 관련성을 보였다. 보통의 영양불량 상태를 나타냈던 MoP군은 총 재원기간과 TPN 공급기간에 체중과 유의적인(P<0.05)인 관련성을 보였고, TPN 공급전 재원기간과 체중감소율(% Wt loss), 체중변화량은 유의적인(P<0.05)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혈청내 Sodium, Chloride, TLC 함량은 총 입원기간, TPN 공급기간에 유의적인(P<0.05)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심한 영양불량 상태를 보인 SP군은 각 기간별 신체계측 지표와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혈청내 Sodium 함량은 TPN 공급전 재원기간과 유의적인(P<0.05)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전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체중변화량과 TPN 공급전 재원기간과(P<0.05), 혈청내 Sodium 함량은 총 입원기간(P<0.05)과 TPN 공급전 재원기간과(P<0.01), 혈청내 Chloride 함량은 총 입원기간과 TPN 공급기간과의 유의적인 관련성(P<0.05)을 나타내었다.